

경제 분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식과 정의의 활용

L. R. Klein · 美 펜실바니아대학 교수

일반적으로 한 경제 즉, 국가 경제, 지역 경제 또는 세계 경제의 복잡한 기능(역할)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요 요인들이나 변수들간의 상호 관계를 이용한다. 이 작업은 분석되는 어떤 상황 내의 많은 요인들의 작용때문에 복잡하다.

경제 분석을 잘하는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때문에 단순화를 원한다. 그러나 단순화는 너무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다. 즉, 총량 경제(거시경제)는 실제로 상호 관계의 집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화는 아주 誤導될 수 있다.

단순화된 상호 관계들의 일부는 통계적으로 기초된다. 그들은 발생하고 있거나 이미 경제 이론에 의해 일어날 것으로 규정된 역사적·논리적인 관계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결정적인 순간에 주로 고도의 단순성때문에 무너지고 만다.

본 고에서는 종종 과다하게 되는 통계적 관계들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회계적·법적 또는 제도적 기반을 갖는 단순한 관계들을 논하고자 한다. 회계 관계들은 회계의 복식부기법때문에 일어난다. 즉, 개인 거래를 대장의 차변과 대변에 동

시에 기입하는 것이다. 많은 거래들이 있고 그들이 함께 합쳐질 때는 개별적인 기입은 볼 수 없고 오직 총계만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제 교역에서 한 재화가 선적되었을 때, 이것은 보낸자 측에서는 수출로, 받는자 측에서는 수입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세계 수출은 세계 수입과 일치되어야 한다. 만일 현재 널리 사용되는 美 달러와 같은 국제적인 계산 단위가 있다면, 단순한 회계 관계를 찾아야 한다.

어떤 재화의 세계 수출은 동일 재화의 세계 수입과 같다. 모든 재화의 세계 수출의 가치는 모든 재화의 세계 수입의 가치와 같다.

가치들은 美 달러와 같은 공통의 계산 단위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재화에 대해 물리적 단위가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회계 균형이다. 이 균형 방정식을 기술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세계 무역수지가 零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세계 경상수지(서비스와 국가간 금융 거래를 망라하는)는 零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교역상 보고되

는 자료에 의하면 영의 수지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밀수나 불법 거래, 비밀 거래, 또는 수출입 업자간의 상이한 가치 평가 행위때문이다.

이상에서는 보고되는 가용 정보로는 완벽하게 만족되지 않는 국제수지 제약성을 논의했는데, 이 불일치는 때때로 세계 수준에서 한 해에 1,000억 달러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경제적 분석을 뒤집어엮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같은 단일 국가의 경제 회계에는 통계적 불일치라는 항목이 있다. 한 나라의 GDP를 측정할 때, 정보를 수집·조합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GDP는 이를 창출하기 위해 생산 요인들에 지불되는 모든 소득의 합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요소 투입물에 의해 창출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모든 지출의 합계로 측정될 수 있다. 전자는 GDP의 소득 측면의 총계이고, 후자는 지출측의 총계이다. GDP의 두 추정치간의 차이는 900억~1,000억 달러에 달하며, 실제 경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는 정책 입안자들을 당혹케 할 수도 있다.

한 경제에서 단순한 제도적이나 법적 관계의 예로는 금융시스템의 준비금과 미불 예금간의 일치를 들 수 있다.

은행 준비금은 적어도 모든 예금의 명시된 비율만큼 유지되어야 한다.

인식 관계의 또 다른 종류는 정의(definition)인데, 현재 매우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잠재 생산(potential output)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 경제를 그 잠재력 이상 또는 그 이하로 운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정책 입안자에게 관련된 척도이다. 금융이나 재정 당국 같은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가 잠재력 아래로 내려간다면 언제 자극책을 쓰며, 반대로 잠재력 위로 올라간다면 언제 억제책을 써야 할지를 알기 원한다.

잠재 생산(output)은 인구, 경제 활동 참여율, 생산성 비율의 공동 생산으로 정의된다. 생산성 비율은 종종 근로자당 생산으로서 기술된다.

이 정의의 사용자들은 자주 수준에 대한 진술에서 시간 변화율에 관한 진술로 바꾸곤 한다.

생산(output)의 변화율은 인구 변화율, 경제 활동 참여율의 변화율과 생산성 변화율의 합계이다.

이 변화율의 합으로서 기술된 변형은

어떤 시점에서 약간의 상승 또는 하락의 작은 변화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생산 증가율을 변화 형태로 정의하면, 인구 증가율, 경제 활동 참여 증가율과 생산성 증가율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많은 경제 분석가들은 그것들이 전체 경제의 잠재 또는 실제 성장에 대해 아주 이해할 수 있고 통찰력있는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관계를 갖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연간 약 0.9%의 인구 성장, 연간 약 1.25%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연간 약 6%의 생산성 증가로서 해석하는지 모른다.

이것은 생산 증가율이 8.15%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전에는 9%를 넘었지만, 최근 들어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지난 10 년간의 전반에는 9%에 달했지만, 매년 그 수준에 머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잠재 증가율 9% 미만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 추정 방법의 유용성은 우리의 판단이 인구, 경제 활동 참여와 생산성 증가율에 대해 얼마나 확고한가에 달려 있다. 인구 증가율은 아주 견실하지만, 하향 추세에 있을 수 있다. 경제 활동 참여율은 여성의 유급 근로 고용 참여나 평균 학교 교육 기간의 영속성 같은 이슈에 달려 있다. 생산성은 기업가적 시행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적·기술적 지

식의 흐름에 좌우되기 때문에 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인식은 주제에 대한 사고를 소개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지만,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추정치를 제공할 만큼 자세하지도 확신적이지도 않다.

물론, 한국의 경제는 '호랑이(tiger)'로 비유될 만큼 매우 역동적이며, 경제적 성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변화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 단순한 공식이 훨씬 더 확신있게 사용되고 있으며, 필자의 의견으로는 정책 입안을 위하여는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선택들은 제한적인 재정 정책인데, 유럽에서는 마스트리트(Maastricht)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공공 예산에서의 嚮에 가까운 균형과 인플레이에 대응할 적절한 금융 정책을 달성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美연방 준비은행 당국은 두 개의 주요 실제 지표를 참조한다. 첫째는 GDP 잠재력과 관련된 GDP 성장률이고, 둘째는 자연 실업 수준과 관련된 실업률이다.

앞에서 정의된 인식(definitional identity)은 금융이 다른 정책 당국자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이 인플레이를 유발할 수 있었던 수용 능력 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연간 2.0~2.5% 이상 빠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보다 빠른 성장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첫째, 인구가 연간 1% 또는 그 이하로 고정된다. 둘째, 경제 활동 참여는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최고율에 달해 있다 (여성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있으며, 베이붐세대의 일시적 증가도 흡수되고 있음). 셋째, 생산성은 둔화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산 증가를 표현함에 있어 핵심 변화율과 관련된 정태적이고 비관적인 견해들을 분석할 때, 경제를 아마도 연간 3% 이상으로 보다 힘차게 확대시킬 수 있는 '도피구' (escape hatches)나 '안전 밸브' (safety valves)가 정말로 있음을 알게 된다.

이민은 합법적·불법적 입국자에게는 매우 유동적인 요인이다. 현재 번영하는 상황에서 출생률은 다시 증가할 수도 있다. 또한 번영 그 자체는 근로자들을 추가시켜 경제 활동 인구가 되게 할 것이다. 여성들은 여전히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의 한계(margin)를 쥐고 있다. 퇴직 연령이 점차 高齡으로 연장되고 있다.

생산성 수치들을 믿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첫째는 추세들이 에너지 위기(쇼크)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동 판단들을 정상 참작하지 않고, 70년대 경험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고 있다. 둘째는 생산 과정에서 서비스와 중간재의 처리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마

지막으로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투자를 개선하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채택될 수도 있었던 재정 정책들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1년 이후 수년 동안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환상에 시달렸다. 경제가 그들의 판단을 넘어 급등한 후,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바꿔 보다 관용적이고 경험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에 단순 분석을 통해 얻어진 추론을 잘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중요한 기회들을 놓쳤다. 그들은 산업이나 섹터 연구를 보다 복잡한 생산 관계들로 분리해야 했으며, 단순 분석을 훨씬 넘어 기술적 요인들을 사용한 상세한 투입·산출 관계를 연구해야 했다.

보다 빠른 성장의 피드백 효과를 통해 예산 적자를 보다 작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긴축을 통해 마스트리트(Maastricht)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럽의 정책 입인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나치게 단순화된 관계들에 근거한 단일 목적의 제한적인 정책들은 인플레이, 실업, 적자 해소를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